인간승리 화천기공을 찾아서 ⑫

〈지난호에 이어〉

창원공장을 팔자

화천의 전 계열회가들이 한꺼번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1980년을 맞은 회사 간부들은 내게 공장 가동중단과 인원감축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나는 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바람에 공작기계를 비롯하여 생산해낸 각종 부품들을 보관할 장소가 모자라 공장의 빈 터라고 생긴 곳들은 모조리 재고품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빈 터에 쌓여있는 제품들이 눈과 비를 맞고 있는 모습은 보기에도 딱했다. 그런데도 나는 공장가동을 중단하는 것만은 한사코 반대했었다. 이때 나는 공장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쇳물인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인원감축에 대해서는 불과 엊그제까지 기능공을 구하지 못해 많은 비용을 써가면서 데려왔던 일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회사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무작정 내보낼 수는 없다. 본인이 스스로 나가겠다면 모르지만 회사의 어려움을 알고 그대로 남아 있겠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 한 사람도 감원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만약 인원을 감축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면 화천의 5개 회사 가운데서 가장 전망이 좋고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회사 하나를 매각하는 방법을 택하겠으니 잘 연구해 보라'고 말했다. 이것이 화천도 살고 종업원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드디어 간부들도 경영난 타개를 위한 정상화 방안으로 5개 회사 가운데 창원공장의 매각 안을 나에게 건의해 왔다. 진작부터 각오를 하고 있긴 했지만 막상 건의가 들어오고 처분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었다. 당시 정상가동 중이던 창원공장은 연간 1,500대의 각종 공작기계를 생산하고 있었으며 수출 물량도 상당량을 확보하고 있었다. 나는 공장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얼마간의 여유자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팔겠다고 내놓은 창원공장도 곧이어 5·18 광주민중항쟁이 발발하는 등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전개로 사겠다는 기업이 나서지 않았다.

난국 속에서 봉급 25%를 인상한 이유

이런 와중에서도 회사는 노조와 1980년 6월 1일을 기해 종업원의 봉급을 25%나 인상하여 4월분부터 소급적용한다는 합의문을 통과시켜야 했다. 그리고 회사는 합의대로 봉급을 모두 지급했다. 회사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처럼 종업원들의 봉급을 파격적으로 인상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우선은 그동안 창원공장 건설을 위해 회사 간부를 비롯한 전 종업원들이 불평 한마디 없이 나의 방침을 따라준 데 대한 보답이자, 경영책임자로서 경기불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의 표현이기도 했다.

나의 희망적인 기대는 1980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하나하나 빗나가 버렸다. 1980년의 수출은 당초 기대는 물론 지난해의 실적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회사가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계공업 업계와 금융기관들 사이에는 '화천이 1981년을 넘기지 못하고 도산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 무렵 수도요금이나 전화·전기요금까지 관례에 없는 어음을 끊어서 치르기도 했다. 회사 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 수도국이나 전화국에서 이런 편의까지 봐준 것이었다.

회사 사정이 이 지경이 되자 회사 안팎의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조용히 찾아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회사의 뭐라도 값나갈 만한 것을 좀 챙겨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가족들과 함께 생활이라도 할 것이 아니냐'고 귀띔을 하기도 하였다. 나는 이런 귀띔을 단호히 사양했다. "나 혼자만 살자고 이 많은 종업원과 회사를 버릴 수는 없네. 자네들의 충고는 고맙지만 화천이 도산하면 이 권승관이도 함께 망해야 옳지, 권승관이는 살고 화천은 망한다면 내가 무슨 낯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대충 이런 말로 그들을 타일렀다.

부친의 퇴직금까지 구사자금에

종업원들의 봉급을 25% 인상하고 난 후 회사의 자금사정은 걷잡을 수 없이 급박해졌다. 5개 회사의 부장급 이상 간부들로 '경영합리화위원회'를 만들어 내부자금 조달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난국타개에 직접적인 힘을 보탰다. 그 내용은 직급별로 동원 가능한 금액을 정해 각자 마련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들 중에는 노조위원장도 포함되었다.

누구 한 사람 정해진 날짜를 넘긴 사람이 없었다. 일부 간부들은 모금액 가운데 절반을 무이자로 동원해 오기도 했다. 말이 그렇지 세상에 어떤 회사 간부가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 회사에다 이자도 못 받을 사채를 선뜻 구해다 바칠 수 있겠는가. 실로 눈물겨운 구사운동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어떤 간부는 부친이 공직에서 퇴직하고 받아온 돈을 그대로 들여오기도 하였다. 나는 뒤에 이 같은 사연들 듣고는 그 값진 돈을 자식의 손에 쥐어줬을 아버지를 떠올리며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자금이 3억 500만원을 넘었다. 1980년 당시에 이만한 돈들을 그것도 확실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없이 앞장서서 구해왔던 것이다. 나는 그들이 눈물겹도록 대견스럽고 고마울 뿐이다.

때맞춰 상공부 등에 건의한 은행 적금해약 건도 해결이 되어 11월에 14억 원의 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말이 14억 원이지 막상 받아놓고 보니 3일도 안 되어 한 푼도 없이 나가 버렸다. 당장 급하게 나가야 할 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내가 얻은 교훈은 기업의 자금이란 꼭 필요한 시기를 넘기면 그보다 3~4배의 돈을 쏟아 넣어도 별 무 효과라는 사실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우리나라 고대사 揆園史話 ㉓

(규원사화)

▣ 一沙 權正孝 옮김

〈지난호에 이어〉

마리의 참성단은 4천년이 지났지만 굳건히 남아 있고, 사막 남쪽의 만리장성은 2천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높은 담으로 쭈뼛쭈뼛하게 서 있으며, 경주의 첨성대는 1천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높다랗게 우뚝 솟아 있다. 그러한 즉 사람이 어깨로 지고 손으로 갈며 먹줄을 퉁긴 것은 능히 수천 년이 지나고도 없어지지 않았는데, 유독 그것을 어깨로 지고 손으로 갈며 먹줄을 퉁겼던 사람의 생은 부패한 피와 썩은 살과 함께 모두 사라져서 누른 모래와 썩은 흙 사이로 영원히 없어져 버렸으니, 일찍이 정령(精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宇宙之內 蒼茫之外, 旣有一大精靈, 滿而推運之. 則人之生也, 非但血肉骨骸之, 從氣質中受者也, 更有精神魂魄之, 自精靈而稟者也. 余於儒.佛及檀儉之說, 雖不遑其辨證, 而人生自有不滅之靈, 扶善滅惡, 通性完功, 則身固有死, 而英靈不泯, 能朝天而入神鄕, 則可信矣.

우주의 안으로 아득히 넓은 그 언저리에 이미 하나의 큰 정령이 있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밀어 움직이는데, 곧 사람의 삶이란 것은 비단 피와 살과 뼈를 그 기운의 바탕에 따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정신과 혼백을 정령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나는 유가나 불가 및 단군임금의 말에 대해 비록 증명할 만한 겨를이 없으나, 사람의 삶에는 없어지지 않는 영(靈)이 있어 착함을 북돋우고 악함을 소멸시키며 본성에 통하고 맡은 바를 온전히 하면, 곧 신체는 굳어져 죽는다 하더라도 영령(英靈)은 없어지지 않고 능히 하늘에 올라 신의 고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믿을 만하다고 여겨진다.

昔者永郞, 恨人生之無幾, 慕先聖之化神, 乃棄其率, 入向彌山中, 修道行, 年九十有 兒之色, 鷺羽之冠, 鐵竹之杖, 逍遙于湖山. 神女寶德, 歎之殘命, 惜朝露之易消, 乃求師學道, 抱琴以歌, 音若靈 之玉簫, 貌若秋水之芙蓉. 是固, 仙之達者也. 若夫, 齊景公, 泣牛山之落日; 秦皇, 嘆東南之雲氣; 漢武, 有悔於汾水之秋風; 阮籍, 乃哭於窮道落日蒼蒼者, 是人生之悲處耶? 秦皇而無死, 則東南之雲氣竟得無驗耶? 漢武而遇仙, 則建章柏(梁)[樑]終免黃塵耶? 阮籍而寄生於虞舜之世, 則擊石石, 率百獸以舞耶? 人之說生者, 是惑耶? 惡死者, 是弱(衰)[喪]而不知歸者耶? 方其夢而不知夢者耶? 余與人, 皆夢耶? (人之死者)[人之死者]人之說死者, 信可悔, 其始之 生耶? 此世則苦海也[而], 人之生也是墜落於苦海者耶? 兒出胎門則便哭, 眞有愁於人世而然耶?

예전에 영랑(永郞)이 인생의 덧없음을 한탄하고 앞선 성인들이 신이 되었음을 사모하다가 그 식솔을 버리고 향미산(向彌山)에 들어가 도를 닦더니, 나이 아흔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얼굴 색을 하고서 백로의 깃으로 만든 관에 철죽(鐵竹) 지팡이를 짚고 호수와 산을 거닐었다. 신녀(神女) 보덕(寶德)이 하루살이의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을 한탄하고 아침 이슬이 쉽게 사라지는 것을 애석해 하더니, 이에 스승을 찾아가 도를 배우고는 거문고를 타며 노래를 부르니 그 소리는 마치 영묘한 하늘의 옥퉁소 같았고 그 모습은 마치 가을 연못의 연꽃과도 같았다.

이러한 것이 진실로 신선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제나라의 경공(景公)은 우산(牛山)에 떨어지는 해를 보고 눈물을 흘렸으며, 진나라의 시황제는 동남의 구름 기운을 보고 한탄하였으며, 한나라의 무제는 분수(汾水)의 가을 바람결에 후회함이 있었으며, 완적(阮籍)은 갈 길은 어려워지는데 해는 기울어 어둑어둑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하니, 이것이 인생의 슬픔이 아니겠는가.

진시황에게 죽음이 없었더라도 동남에서 피어난 구름의 기운에 결국에는 그 영험스러움이 없었을 것인가? 한무제가 신선을 만났더라도 새로운 문장(文章)을 만들어 내었던 백량대(柏梁臺)가 결국에 가서는 누런 먼지로 변함을 면할 수 있었겠는가? 완적이 순임금의 태평 세대에 더불어 살았더라면 옥쟁반을 두드리며 온갖 짐승을 거느리고 춤을 추었겠는가? 사람으로서 삶을 좋아하는 것은 삶에 미혹되어서이며,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길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돌아 갈 곳을 몰라서인가?

한참 꿈을 꾸면서도 꿈인 줄을 모르는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사람의 죽음이란 살아 있음을 참으로 한스러워 하다가 죽음으로서 비로소 참된 삶이 된다는 말인가?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이며 사람의 삶이란 것이 바로 고통의 바다에 추락한 것이라는 말인가? 어린아이가 뱃속을 나서자마자 울음을 터트리는 것은 진실로 세상에 대해 근심이 있어서 그러한 것인가? (다음호에 계속)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대의원회비

△권태경(강릉)	10만원
△권영방(안양)	10만원
△권혁태(의왕)	10만원
△권성갑(순천)	10만원
소 계	40만원

▣ 찬조금

△권계주(부총재)	100만원
△서울산악회	10만원
소 계	110만원

합계 150만원

▪ 역사기행

실학사상 발전의 선구자 순암(順菴) 안정복(安鼎福)

▣ 향촌 권오창 (본원 자문위원)

순암 안정복<1712(숙종 38년)~1791년(정조 15년)> 선생은 만년에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덕곡마을에 돌아왔다. 이곳에서 학문연구와 저술 그리고 후학 지도에 몰두하였다.

또한 이태재라는 조상을 받드는 재실을 명명하여 봉제사하고 학문 강학의 장소로도 사용하였다.

충북 제천에서 안극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질병으로 인하여 허약체질을 가지고 고생하였다. 1717년에는 전남 영광 월산에 있는 외가에서 살다가 조부 안서우가 한양 숭례문 밖에 기거할 때에 이곳에서 살았다.

그의 조부는 1694년 문과에 급제하여 태안군수, 울산부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조부의 잦은 관직의 전임으로 조부 곁을 따라다지지 못하였다. 그리고 당시 남인이었던 그의 가문 때문에 당쟁에 영향을 받아 그의 부친은 일생동안 처사로 지냈다. 그의 가족은 1726년부터 전북 무주에서 정착하여 살았으나 그의 조부가 1735년에 별세하자 선영이 있는 덕곡마을로 왔다. 그때가 1736년이 되는 해이다.

그의 수학 행로를 보면 그는 여러 가지 가정 사정으로 1721년이 되는 해에 10세가 되었는데 그제야 기초학문에 입소할 수 있었다. 그 후 스승의 가르침 없이 친가 외가에서 가학(家學)으로 학문연구 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는 독학의 과정에서 역사 천문 지리 의학 등에 걸쳐 통달하였지만 등과에는 뜻을 두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1737년 26세 때에는 독자적으로 '치통도'와 '도통도'를 저술하였다. 전자는 중국 3대 문화와 정통설을 기본으로 삼은 것이고 후자는 6경의 학문을 기초로 삼은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해는 '치현보'를 저술했으며 이어서 '향사범'을 지었다. 1740면 29세 때에는 '하학지남' 상·하권을 집필했다. 31세 때에는 여자의 행동규범에 관한 '여범'을 저술했다.

그의 이러한 저술은 가학이라는 바탕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문인들의 교류에 있어서 쉽게 학풍논리에 변화되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실학자들보다 개혁적인 면이 적었고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 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다수 있다.

그는 남인 출신인 성호 이익이 66세가 되던 해에 그의 문하에 들어가서 주자학을 수학했다.

성호 이익은 그를 훌륭한 제자로 받아들였다. 성호 이익은 1681년(숙종 7년)~1763년(영조 29년) 기간의 생애를 살았고 1705년 문과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하여 당시 당쟁의 폐해를 직감하였음으로 벼슬을 단념하고 안산에 머물면서 반계 유형원의 학풍을 계승하여 실학자의 중시조에 지칭되었다.

반계 유형원은 현종 때의 실학자로 실사구시의 학문적 기초를 정립하고 청(淸)의 고증학을 연구 탐독하였고 중농사상을 기반에 두고 토지개혁, 중앙집권강화, 부국강병책을 건의하였으나 학문적 이론에 그치고 말았다. 그는 1770년(영조 46년)에는 왕명에 따라 '반계수록'을 간행했다.

반계수록의 내용은 전제, 관제, 군제, 록제 등의 제도에 관한 고증을 적고 그 개혁의 경위를 기록한 서적이고 보완 속간되었다. 이는 조선시대의 사회 경제 특히 전제에 대한 귀중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순암 안정복의 학통 연원은 위와 같은 기술에서 살펴보면 된다. 본래 그는 퇴계 이황의 사상에 심취하였지만 그 당시 청(淸)으로부터 새로운 학문을 추구하던 시대에 그동안 익혔던 지식을 바탕으로 교류하였던 문인들에게는 괄목할만한 존재가 되었다.

그는 1749년 문음으로 그의 관직은 강화도에 있는 정조의 만녕전 참봉직을 받았다. 그 후 1751년의 영고봉사 사헌부 감찰 익위사 익찬 등을 거쳐 65세의 나이로 목천 현감이 되었다.

1756년에는 '이리동약'을 짓고 '임관정요'를 저술했다. 무엇보다 그의 빛나는 저술은 '동사강목'이다.

이 역사서에는 기자조선 시대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다루었는데 1759년에 완성하였다.

이는 중국의 주자 '통감강목'을 본받아 지은 것이다. 책의 편제는 서 목록 범례 전수도 고이 괴설 잡설 지리 강역 고정으로 구분 기록하였다. 이 책의 기본 용도는 자제의 교과용 교서로서 삼국유사의 내용을 인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사를 과감히 수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고대사에 대한 야사기록들을 인용하고 있다. 특히 요사이 '한단고기'에 관한 실증기록과 중국의 동북공정에 따른 역사왜곡에 대한 반박자료로서 '동사강목'이 실증자료로 떠오르고 있다.

이 밖에도 야사적인 측면이 있는 '잠동산이'와 '성호사설유선' 등의 저술이 있다. 그는 많은 저작을 남기고 1791년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그의 저서를 통하여 참신한 시대적인 개혁사상을 실현하는데 부응하지 못하였으나 실학사상적 측면에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한 공적은 높이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

문고리 권력을 혼 내준 종각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재상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몰린다는 속언이 있다. 권력을 가진 재상의 일이라면 작고 크고 간에 명목을 가지고 찾아가서 눈도장을 찍든 교제를 하던 기회를 만들려는 사람들의 인심을 꼬집는 말일 터이다. 중국 위진 남북조시기에 하급관직으로 전첨(典籤)이라는 자리가 있었다. 전첨이란 부(府)나 주(州)의 자사가 심부름으로 문서의 수발하는 일을 맡은 낮은 자리이다. 사실 문서의 수발이라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며 그 문서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단순한 심부름꾼으로 채우면 될 자이였다.

그런데 위진시대 남조 송(宋) 중엽에 오면서 사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송의 황제는 여러 아들에게 지방을 진수하는 책임을 지워서 자사로 임명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 아마도 아들들에게 관직을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의 황제의 울타리 노릇을 하라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황제의 아들이라도 문제는 어느 정도 일을 할 만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야 하는데, 아들에게 관직으로 주고 싶은 생각에 어린 아들을 자사로 임명하여 지방에 내려 보내기 시작하였다.

그러하니 제대로 이들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보좌하는 인물을 뽑았고, 이들에게 전첨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어린 자사를 돕는 사람이 하급관리가 맡는 전첨의 일을 맡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점차로 문서를 관리하는 전첨의 권한이 무거워졌다. 문서를 관리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문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처리를 하면서 자사를 돕게 되니 일은 편리해졌지만 그 권력은 점차 자사를 뛰어 넘는 상태에 이르렀다.

사실 우리에게는 문고리권력이라는 말이 있다. 높은 분을 보좌하는 부속실에 근무하면서 드나드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고 닫아 주는 직책은 정책을 결정하거나 인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란 드나드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사귀어야 될 사람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겨나고, 심지어는 부정행위가 탄로되어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다.

문고리 권력이 기승을 부린다는 말은 그 문안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데서 나온 것일 것이다. 마치 남조 송 시대에 황제의 아들이라 하여 자사가 된 어린 사람처럼 말이다. 자사는 되었지만 일을 어떻게 처리할 줄 모르니 하는 수 없이 문고리를 잡고 있는 전첨에게 자문을 발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누가 보더라도 문고리를 잡은 사람이 하급관리인데, 그 문고리를 잡은 사람에게 절절매는 높은 사람이 천지에 쌓여 있으니, 문고리 권력은 점점 기승을 부리는지 모를 일이다.

이러한 풍토에서 남조 송에서 종각(宗慤)이라는 사람이 광주자사에서 예주 자사로 전보되었다. 그런데 전첨으로 오희(吳喜)라는 온 사람이 왔다. 자사인 종각이 일을 처리하여 내려 보내면 관례대로 오희가 이를 틀어쥐고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보다가 참지 못한 종각이 드디어 화를 냈다. "나 종각은 나이가 곧 예순이 되도록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다가 단지 하나의 주를 얻게 되니 마치 한 말[斗]과 같은 크기인데 다시는 전첨과 더불어 이에 임하지 못하겠다!"

다시는 전첨과 같이 일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오희도 전첨이 처리한 관례대로 한 것뿐, 크게 잘 못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전첨이 월권한 것은 잘 못된 것임을 알고 크게 사과하여 이 일은 그대로 끝났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전첨의 전횡 같은 일이 어디 한두 군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 관례라고 하면서 법망을 벗어나지만 근본적으로는 잘 못된 것이다. 그런데, 종각같이 목숨을 내놓고 고치려는 상관이 없으니, 고쳐지지 않을 뿐일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別世

文鶴 權憲成 顧問 別世

文鶴 權憲成(복야공파 34世) 고문은 향년 89세를 일기로 지난 9월 6일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하였다.

항상 인자한 성품으로 여러 사람들의 추앙을 받아왔으며 복야공파종회 6대 회장이었으며 대종원의 고문으로 문사에 크게 기여하였다.

지난 9월 9일 많은 조문객이 참여한 가운데 4일장으로 안동시 서후면 이개리 선령에 안장되었다.

슬하에 4남 3녀(오원 오형 오일 오광 영옥 영숙 미옥)을 두고 있다.